

茶

28

제519호
불기 2549년 3월 30일 수요일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culture

창경궁 '우리 차문화' 행사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기래)와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소장 전기선)는 전통 차문화와 생활예절을 접해볼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전통 차문화' 행사를 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 매일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창경궁 내 영춘헌과 집복헌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차문화의 이해 및 생활예절 강의, 다도 실습 및 다식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로 꾸며진다. (02)762-4868

태평양박물관 '일로향실' 전시



'태평양 박물관'은 오는 8월까지 '일로향실(一爐香室): 조선 후기의 차 향기(茶香)를 따라서'를 주제로 차 문화 전시회를 연다. '일로향실'은 초의 선사(草衣)가 주석한 일지암의 다실 이름으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 차 문화의 대표적인 인물인 초의 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차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김정희가 초의 스님에게 보낸 10통의 편지를 필사한 <영해타운첩(靈海茶雲帖)>이 일련에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 문인화가 소치 허련이 김정희의 귀양살이 모습을 그린 '완당선생 해천일립도(海天一笠圖)', <다신전> <종다송> 필사본, 백자채주전자 등 태평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28점의 편지와 그림, 다도구 등이 선보인다. 또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며 입장료는 무료. (031)285-7215

정재현 김영태, 찾그릇 2인전

도예가 정재현 김영태씨의 2인전 '찾그릇, 세로움의 세계'가 4월 15~24일 대구 예술품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정재현 우혜오 대표는 단정하고 깨끗한 느낌의 백자 찾그릇을 주로 만들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기세트와 텀파다완, 귀일다완 등을 선보인다. 공평요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태씨는 학을 새겨 넣은 다완으로 유명하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도다완, 분청다완, 백자다완, 청자다완 등과 고려다기세트를 출품할 예정이다. 고려다기란 다만 위 두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려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053)426-1515

'茶禮'는 차례로 읽어야 할까, 차례로 읽어야 할까? 현재 차계에서는 다도 다식 다도구, 차인 차잔 차나무 등 '茶'를 '다'와 '차' 두 가지 음으로 혼용하고 있다. 같은 한자에서 나오는 두 음(音)임에도 흔히 '다'라고 하면 수준이 높고 '차'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다'는 한자고 '차'는 우리말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음이 나뉘어져서 쓰이게 됐고, 어떻게 읽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 차와 다의 어원

'茶'의 어원을 살피려 하면 차의 원산지인 중국의 예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차 주요 생산지인 푸젠(福建)성에서는 '茶'를 테(te)로, 광둥(廣東)성에서는 차(cha)로 각각 발음한 것이 오늘날 표준어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된 차가 푸젠성과 광둥성의 항구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차 발음 또한 테(te)와 차(cha)로 나뉘어져 쓰이게 됐다. 주로 해도를 통해 차가 전파된 영국(티, tea)이나 독일(티, tee) 말레이시아(테, the) 네덜란드(테, thee) 핀란드(테, tee) 등은 테(te)에서 파생된 음가를, 육로를 통해 전파된 러시아어(차이, чай) 몽골(차이, чай) 일본어(차, 차) 터키(차이, çay) 등은 차(cha)의 음가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자음인 다와 관음음인 차를 함께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예다.

▷ 문헌을 통한 음기비교

우리나라의 옛 문헌에서도 차와 다는 혼용되어 쓰였다. 고려시대 손목이 편찬한 <계림유사>에서는 고려어를 중국 자음(字音)으로 기록한 가운데 '茶灰'이라고 해 '차술'로 읽을 기록이 있으며, <월인천강지곡>(1447년)에는 '가루다(伽嚩茶) 가를 따'라고 했고 <월인석보>(1458년)에서는 '가차(伽茶) 가짜'라 하여 차와 다가 같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6세기 편찬된 <훈몽자회>에서는 '茶, 차다'라 하여 '茶'의 훈은 '차'이고 음은 '다'임을 알 수 있다. 故 전병식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표의문자(表意文字)인 중국어를 우리말의 표음문자(表音文字)로 읽을 때 오는 혼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선 교수는 <한국다문화>에서 '차와 다'가 혼용되어 쓰이는 중에도 대체적인 질서가 있었는데, 왕실과 불가, 사대부에서는 주로 '다'라 했고 서민들은 대체로 '차'라 발음했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다방(茶房)' '다비(茶罷)' '다각(茶角)' 등 궁중이나 사찰에서 쓰였던 '茶'는 거의 '다'로 발음했음을 알 수 있다.



푸젠성의 테(te), 광둥성의 차(cha)에서 유래 한국은 혼용, 왕실 사찰 사대부 주로 '다' 사용 최근 통례로 구분... 찾그릇 등 복합어는 '차'로

▷ 실제 쓰이는 용례에 따라 나뉘어

최근 차계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茶'를 용례에 따라 구분해 쓰는 추세다. '차'로 쓰이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찾그릇 찾자리 찾가루 찾사발 등 토속말 혹은 유사 토속말과의 복합어를 이룰 때다. 또한 녹차 햇차 보이자 용정차 등 '차'가 실제 찾이 자체를 가리킬 때도 '차'로 읽는다. 그러나 고어(古語)일 경우는 칠원다(七椀茶) 감로다(甘露茶) 동다(東茶) 유다(儒茶) 등에서 보면 '다'로 읽힌다. 반면 궁중이나 사찰, 사대부 등에서 '다'로 쓰였던 단어들이 한자와 어울려 단어

를 이룰 때는 대부분 '다'로 읽는다. 다과 다도 다우 다기 다정 깎다 음다 등이 그 예다. 지방의 경우도 부산 다도(漆島) 장수 다곡리(漆谷里) 남해 다정리(漆亭里) 등에서 보면 '다'로 읽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차로 읽느냐 다로 읽느냐에 따라 그 뜻이나 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구별해서 쓴다. '茶禮'는 신이나 사람에게 차를 끊어 내는 행위를 차례로,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일컫을 때는 차례로 흔히 쓰이고 있다. 또 '茶瓶'은 우리 차를 담는 주전자를 일컫을 때는 '다병'으로, 마른 차를 넣어두는 병을 가리킬 때는 '차병'으로 발음하는 예가 많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국	중국	일본
1331 근시 다방원 모두 회복 ① 다고(茶鼓)·다당(茶堂) ① 1333 한수의 출생 ②		1331 차에 관한 편지 ① 1334 <이조하원낙서(二條河原洛書)> ② 1336 내기투다 금지(즉 리존씨) 1338 실정약부설치
1337 정몽주의 출생 ③ ④ 각 지방에 다원이 있었음 ④	1336 고계 ⑤	
고려시대 1340 최해의 죽음 ⑤ 1343 이조년의 죽음 1345 <식화지(食貨志)>에 다방에 관한 것이 나옴 1347 지방전로 정비 1349 이승인의 출생 ⑥	원대 1343 송·요·금의 <삼사(三史)> 편찬 1348 우정의 죽음 ⑦ ⑧ 송현희의 활동 ⑧	남북조 1342 오산실할(五山十刹) 설치
1352 이행의 출생 ① 이연종의 죽음 ⑧		1351 다희의 그림

고려시대 ①

유진경 교수의
연표로 보는
차 문화사 (23)

이 시기는 고려의 차가 제일 번성해서 궁중에 다방원(茶房院)이 있었고 왕궁과 비빈은 물론 공주까지 사찰에서 차를 마셨다. 사찰에도 다당(茶堂)과 다고(茶鼓)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백장경구>가 다시 간행되어 차를 통해 사내(寺內)의 규율과 수칙을 다스리려 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각 지방에도 다원을 두었다. 이런 여건 아래서 정몽주, 최해, 이승인, 이해 이연종 등의 선비 차인들이 속출해 차문화를 높은 경지로 발전시켰다. 중국은 원대에 들면서 북방의 몽골족이 다스리게 되었으나, 차의 생산지는 모두 한족이 살고 있는 남쪽

의 객사(客舍) 같은 역할을 했다.
⑤ 최해(1287~1340): 최치원의 후손으로 강직한 성품으로 청빈하게 살았다. 다공(茶供)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⑥ 이승인(1349~1392): 문인으로 호는 도은(陶隱). 다객으로 많은 다시를 남겼는데 특히 '가명사(佳茗似佳人)'의 대목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⑦ 이행(1352~1432): 호는 기우자(騎牛子). 품수에 능해서 두 가지 물로 차를 끓인 것을 알아낼 정도였다. 차물로 충주의 달천수, 한강의 우중수, 삼타수 등을 꼽았다.
⑧ 이연종(1270~1352): 이승휴의

고려, 각 지방마다 다원 설치 차문화 발전

이었다. 자연 한족의 고매한 차 정신을 이어받기 힘들게 되니 차문화는 조금 후퇴하게 됐다. 개별적으로는 차인들이 많았으나 송대와 같은 명저나 명인들은 드물었다. 한편 일본은 계속 차문화 정착에 힘쓰고 발전하는 시기였다.

① 사찰이 금당(金堂) 주변에 다당을 따로 세우고, 밭고와 다고를 두었던 것은 현다나 다례 그리고 선행(禪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② 한수(1333~1384): 고려 말 문신으로 청성군(淸城君)에 봉해진 차인이다. 엄광대사에게 보낸 다시(茶詩) 등이 <유향집>에 전한다.
③ 정몽주(1337~1392): 여말 충신으로 호는 포은. 차를 즐겨 '석정전다(石鼎煎茶)' 등의 다시를 썼다.
④ 지방 다원은 주로 왕실 사람이나 관리들이 이용한 것으로, 조선조

아들이며 박치암에게 보낸 다사가 유명하다.
⑨ 고계(1336~1374): 명대 시인으로 차를 즐겨 '채다사(採茶詞)'를 썼고 그의 다시 '과산가(過山歌)'가 애송된다.
⑩ 우정(1272~1348): 원대 문인으로 '유용정(遊龍井)'이라는 글에서 용정차의 생산과 체다시기, 품질 등을 논했다.
⑪ 송현희(1312~?): 명대 학자로 맑고 아름다운 다시를 남겼다. '방외(方外)의 친구가 보낸 돌에 담하는 시'가 많이 알려져 있다.
⑫ 금못정현(金澤貞顯)이 이들 정장에게 보낸 편지에 '앞으로 차가 크게 성할테니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햇차를 보내라'고 했다.
⑬ <이조하원낙서>에 투다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성공관대 예절다도학

영험도량

수년간 팔공산 입산 용맹정진 지도로써 약사여래부처님의 영험과 가피력을 증명하신 無有心佛(무유심불) 불토사 큰스님께서 (고통·육체·슬픔·마음·신경·정신) 세계의 고뇌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불치성 질환 무병과 업장 및 전생문제 등을 무유심불 약사여래부처님의 영험 가피로서 큰스님의 원력과 스님들의 지극한 기도발원과 극진한 지도로 본인 각자의 기도정진으로 극복 치유합니다.

無有心佛 약사여래기도도량 불토사

연락처 : 총무소 0331343-0103(속식가능)
전 송 0331344-0406
주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오시는길 : 중앙고속도로 횡성 IC에서 10분거리

袈裟院[가사원] 전통 흥가사 연구소

세로부터 가사바느질을 잘하기로 유명한 전북 고창에서 큰스님들에게 바느질을 전수받아 30여년간 불사소에서 편수를 해왔으며 큰스님들로부터 바느질이 고화 수양공의 호칭을 받으며 지금껏 바느질을 해왔습니다. 얼마다 가사불사를 하시는 스님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불사를 원만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소승이 군산에다 가사원을 개원 하였습니다. 전통방식 그대로 바느질을 하고 있으니 가사불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연락주시면 즉시 상담 래드리겠습니다. 판복 가사도 합니다.

연락처 : 주 간 063-462-5161
야 간 063-451-2410
핸드폰 011-671-5161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나요? 蔘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하여 명문대가 부인들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蔘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蔘蔘)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쇠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왔다.
- 만성위염이 나왔다.
- 혈액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왔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전식이 떨어졌다.
- 백혈병이 나왔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임파선이 나왔다.
- 순환이 좋아졌다.
- 자궁 물욕이 없어졌다.
- 순환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영기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종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다 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원 한정)

만삼달인물(만삼 생것 10kg · 황기 · 전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60포) - 20만원 ▶ 2Box(420포) - 35만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성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❶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